

태풍도 막지 못한 ‘한성로타리클럽 직장주회’ 회원 및 가족 30명,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산업시찰



한성로타리클럽(회장 김무일) 회원들은 지난 8월 23일 (목)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으로 산업시찰(직장주회)을 다녀왔습니다. 그 날 새벽은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급습한다는 속보가 거듭되는 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결단은 아마도 한성 로타리의 의지와 설립정신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김무일 회장님과 장충식 전총재님, 팽재유 전총재님을 비롯, 회원 30명과 가족 및 게스트께서 참석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40인승 버스를 제공해주었는데, 이 버스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석을 이뤘습니다.

현대자동차 박종일 대리께서 인솔자로 참석해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안내해주셨고, 현대차에서 생수 및 음료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산공장 도착 후 공장장 및 임원들께서 로비에서 환대해 주셨고, 홍보실에서 공장장의 인사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홍보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성로타리 클럽의 직장주회를 회의실에서 하였고, 여러 회원님들의 산업시찰 방문 소감도 들었습니다. 주회 후 문화관에서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중식 후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아산공장은 1996년에 준공되어 현재 4,000여명이 근무

중이고 공장 면적이 축구장 약 240배 정도의 큰 면적이며, 연간 완성차는 약 30만대, 엔진은 약 6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현재는 그랜저와, 쏘나타만 아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프레스-차체조립-도장-의장까지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프레스 공장은 철판코일을 가져와서 각 차량에 맞는 패널을 성형해서 찍어내고 만드는 시설입니다. 대부분 로봇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차체조립공장은 외관을 완성하고 로봇으로 용접하는 시설입니다. 철판 되어있는 차체 및 문짝 등은 대부분 로봇이 작업합니다.

도장 공장은 페인트 도료를 도포하고 방진, 방수제를 도포하여 말리는 작업인데 전체 23시간의 11시간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외부 전하 시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영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의장 공장은 완성된 차체에 부품을 조립하고 완성하는 시설입니다. 로봇보다 직원들이 직접 숙련된 작업으로 일



글. 한성RC 전총무 이용원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완성차는 52초에 1대씩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은 세계의 자동차 시장에서 어느 자동차 업체와도 경쟁을 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최고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시찰을 하면서 우리 회원 모두 감탄과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 중에 “해 보기나 해 봤어”라

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국가 경제력을 갖추기까지 자동차, 건설, 중공업 등 모든 분야에 도전정신을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 내신 정주영 회장님이 계셨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국가의 산업 일꾼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산공장 임원진 여러분들의 배움을 받으며 모든 시찰을 마치고 서울로 출발하였습니다.

태풍의 염려 속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산업시찰 방문을 결단해 주시고, 계획해 주신 김무일 회장님, 유창열 총무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